



협회장, 절편녹용 수입 부당함 대내외에 알려

- 각종 단체장 회의 참석, 절편녹용 막기 위한 발빠른 행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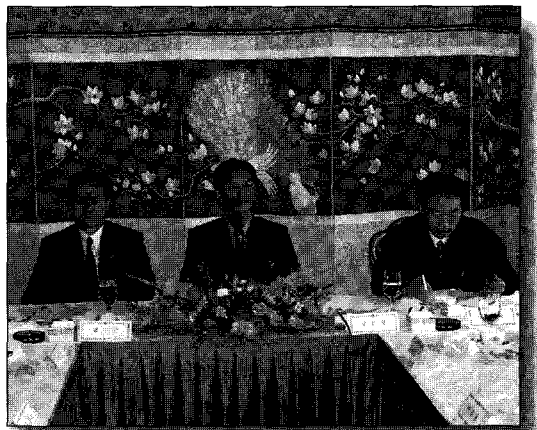
상대는 뉴질랜드. 절편 녹용에 대한 협상 타결을 위해 총리까지 움직이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버거운 상대다. 사육두수에서, 녹용 생산측면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절대 약자인 국내 양륙이 이 엄청난 상대로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양륙이 처한 어려움을 대내외에 알려 여론의 힘을 빌어야 한다. 하나가 외치면 고함이지만 여럿이 외치면 합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회 김은성회장은 국내 양륙이 처한 위기상황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본회 14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은성회장은 임기시작과 함께 뉴질랜드 절편 녹용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자 즉각 각종 간담회 및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가, 뉴질랜드 절편녹용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리고 현 국내 양륙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인지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5월23일 23개 축산관련단체장 및 농림부 안종운 차관보, 축산경영과장, 가축위

생과장 등이 참석한 축산관련단체 조찬 간담회에서 김은성회장은 절편녹용 수입압력, 수입녹용 부정유통 실태 및 대책안에 대해 설명했다.

6월 4일 자민련 총재 농민단체 대표 면담에서는 절편녹용 수입저지 양륙인 대회 개최 계획을 설명하며 정당 및 농민단체의 협조를 당부했고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양륙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 절편녹용 수입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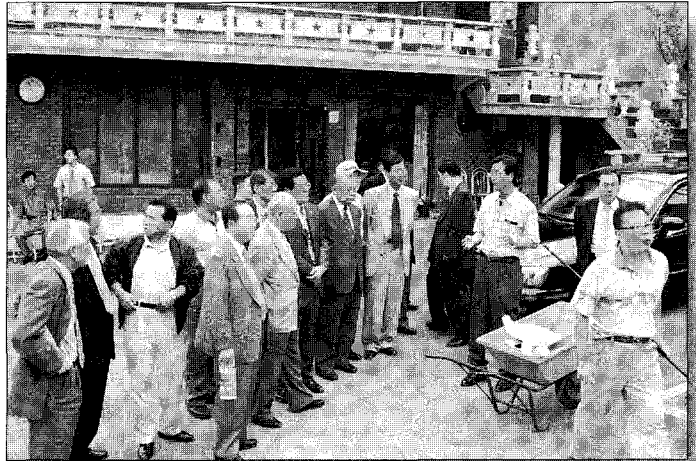
▲ 지난 6월 5일 양륙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 뉴 절편녹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책을 업계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은성 회장은 “절편녹용 수입은 국내 양록업의 생존을 위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절편녹용 수입저지 범 양록인 대회를 개최키로 참석자들과 합의했다. 더불어 효과적인 양록인 대회를 위해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록농협, 한국사슴산업연구회 등 3개 단체장을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범 양록인 결의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 8월말 실시되는 양록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6월13일에는 농민단체 대표 한나라당 총재 면담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권오을 의원 등 농림수산위원들과 녹용수입저지 방안 등을 협의, 양록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양록업이 귀족축산이라는 과거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어엿한 4대 축종으로서의 축산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6월14일 축산단체 협의회 회장단을 직접 본인의 농장에 초청, 절각시범을 보이고 국내 양록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송석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 김남용 농단협 대표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각 단체장의 양록업 전반에 걸친 질의가



▲ 축산단체 협의회 회장단을 본인의 농장에 초청, 국내 양록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져 양록업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마련시켜 준 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농림부 김동근 차관 초청 간담회, 축산포럼 등 각종 축산관련 회의에 참석, 국내 양록산업에 대한 이해확대 및 절편녹용 수입의 부당성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은성 회장은 “한우협회가 수입생우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이면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었지만 타 단체 및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이 뜻을 같이 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의 뜻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지원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들과의 만남과 인간적 관계를 유지, 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도양**